

■ 김태영 국방부장관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향해 전진

친애하는 국군 장병과 예비군,
그리고 모든 국방가족 여러분!

희망찬 2010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더욱 건승하고, 가정에는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고지에서, 거친 바다에서, 드넓은 창공에서 주어진 임무 완수에 전력하고 있는 장병 여러분과 멀리 레바논·소말리아를 비롯한 세계 분쟁지역의 평화 유지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있는 파병 장병 여러분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군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 본연의 임무 완수에 충실함으로써 선배 전우들이 이룩한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이어 왔습니다. 새해에도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조국 수호의 성스러운 사명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될 안보상황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동북아의 안보상황도 불확실하고 유동적입니다.

특히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 부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 북한은 지난 한 해에도 ‘무력대결 불사’ 발언을 시작으로 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 그리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실화(無實化) 시도 등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 군의 태세와 안보역량을 시험해 왔습니다. 또한 화해 개혁의 후유증과 김정일 정권의 세습과 정에서 발생할 체제 불안정은 어떠한 형태의 위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존하는 군사적 위협에 확고히 대처해 나감은 물론,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춰 나가야 합니다.

본인은 이미 취임사에서 ‘선진강



군’ 건설을 위해 ‘일류 국방경영’ ‘강한 군대’ ‘국민의 국방’을 국방운영의 기조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국방 경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군대의 육성,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국방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강군의 ‘필수조건’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방 비전을 이뤄나갈 충분한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6·25전쟁을 비롯한 숭한 위기로부터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 온 우리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을 기본 가치로 여기며 이를 행동으로 실천해 온 우리이기도 합니다. 높은 지적 수준과 창의력이 뛰어난 신세대 장병들로 구성된 우리 군은 강한 군대의 기본 조건을 그 어느 나라 군대보다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국민은 대다수가 군인가족으로 우리 군에 대해 무한한 성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군에 주어진 축복이고 기회인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국방가족 여러분!

대나무가 강한 것은 마디를 맺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시작했던

2000년도 이제 10년의 마디를 맺고 새로운 10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10년에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우리에게 전환되어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국군이 지원하는 새로운 작전수행 체제가 구축될 것입니다. 아울러 국방의 선진화와 ‘국방개혁 2020’을 완성해야 하는 역사적인 기간입니다. 이 시대적 과업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앞에 펼쳐질 2010년은 우리에게 더욱 특별한 결의와 각오를 요구할 것입니다. 나부터, 그리고 우리부터 변화겠다는 솔선수범의 자세와 실용과 변혁, 그리고 화합과 소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글로벌 코리아’를 뒷받침하는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60년 만에 온다는 백호해인 경인년(庚寅年) 새해를 여러분과 함께 맞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꿈과 열정을 가슴에 안고 새해를 여는 여러분 모두에게 언제나 건승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국방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0. 1. 1 국방부장관 김태영

■ 이상의 합참의장

국적상승 호기 맞아
군사 대비태세 완비

사랑하는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참의장입니다.

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2010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에도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후방 각지에서 불철주야 국토방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병 여러분과, 이역만리 해외에서 세계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파병부대 장병들에게 따뜻한 새해 인사를 보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군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특히 대청해전에서의 빛나는 승리는 우리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변함없이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구작전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수행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오로지 많은 바 소임을 묵묵히 완수해 준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노고를 중심으로 치하합니다.

새해에는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등 많은 국가적



행사가 계획되어 있어 국적을 한 단계 상승시킬 수 있는 호기입니다. 우리 군이 국가적 행사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실존 군사위협뿐만 아니라 국제테러 등과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군사대비태세를 더욱더 완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호랑이해’인 경인년에는 호랑이처럼 적극적인 자세로 당면한 많은 과제를 가시적이고 성과 있게 추진함으로써 ‘정예화된 선진강군 건설’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합니다.

다시 한번 2010년 새해,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부대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0. 1. 1. 합동참모의장
육군대장 이상의

6·25전쟁 60주년 사업 본격 가동

국방부, 3개 분야 13개 사업 시동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국방부는 올 한 해 동안 ‘기억과 계승’ ‘감사와 경의’ ‘화합과 협력’ 등 3개 분야 13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31일 국방부 6·25전쟁 60주년 사업단은 국내외 참전용사의 헌신에 감사하고 전후세대의 안보의지를 고취시키며 참전국과의 유대를 강화, 안보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4:15면

사업단은 먼저 ▲장병(청소년)의 6·25전쟁 실상 이해와 안보의식 고취 ▲국내외 참전용사들의 명예 선양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국제적 우호증진을 통한 안보협력 관계 발전을 사업 목표로 정하고 이에 대별된 3개 분야를 설정했다.

이 중 ‘기억과 계승’은 6·25전쟁의 실상을 알리고 이를 극복하려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등 각

종 전투기념행사와 ‘DMZ 종합기록물 제작’ ‘6·25전쟁 60주년 특별기획전’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감사와 경의’ 분야 사업으로는 ‘6·25전쟁 참전국 기념행사 군대표단 참가’ ‘6·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찾기’ ‘6·25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 회고록 발간’ 등이 계획되었다.

‘화합과 협력’ 분야에는 ‘6·25전쟁 소재 군 창작 뮤지컬’ ‘한·터전승기념행사 및 군인친선축구 참가’ ‘휴전선 155마일 국제 사이클 대회’ 등 문화·체육행사가 마련되었다.

김기영 기자

■편집=남기선 기자

국방일보는 오늘(1일)부터 ‘이 한장의 사진’을 부활합니다. 국방일보 사진자료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된 다양한 사진을 골라 지금과는 다른 병영생활과 선배 장병들의 모습을 게재합니다. 아쉬운 것은 오래된 사진 가운데는 촬영일자와 소속 부대명칭 등이 불확실한 것이 많아 독자들의 양해가 필요합니다.



이 한장의 사진 전선의 새벽을 깨우는 나팔소리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새해 첫날. 육군청성부대 예하 백호대대 소속의 한 나팔수가 전선의 밤샘 전투를 잠시 멈추고 단꿈에 빠져 있는 부대원을 깨우기 위해 힘차게 나팔을 불고 있다. 이제는 병영생활의 먼 추억 한편으로 기억마저 가물가물한 기상 나팔소리. 6·25전쟁 60주년이 되는 2010년 경인년 호랑이해에 다시 한번 추억의 나팔소리가 들리고 싶어진다. 용맹과 민첩함, 기민함으로 웅변되는 호랑이를 깨워 그 정기를 장병들의 심신에 불어넣어 줄 나팔소리를 원단에 듣고 싶다는 소망을 새삼 품어 본다.

〈국방일보 사진 DB〉